

경제

신 3高에 광주·전남 경제 비상등

(고유가·원화·고금리)

유가 급등·원화 상승에 자동차·철강 수출 타격 금리동결 불구 시중금리 올라 가계 이자부담 가중

최근 고유가·원고·고금리 등 이른바 '신(新)3高(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 경제에 부담이 커졌다. 유가 급등에 따라 원화가 치솟으면서 지역내 화학과 자동차·가전·철강 등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데 기존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전남지역 금융계와 기업에 따르면 국제유가의 경우 지난 16일 기준 인도네시아 석유제품(WTI) 거래 가격이 배럴당 78.53달러로 지난해 10월 14일 이후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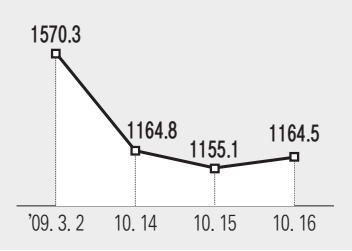
이 되는 양도성에급증세(CD) 금리가 지난 8월 0.15%포인트, 9월 0.16%포인트 오른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벌써 0.07%포인트 더 올랐다.

이처럼 유가와 원·달러 환율, 금리가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업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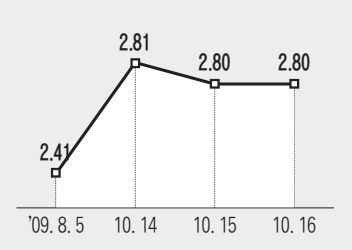
기업 입장에서는 고유가에 원화강세까지 겹쳐 당장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여수산단내 유휴설비는 고유가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쟁국인 중국이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채택해 환율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돼 이종고를 겪고 있다.

광주부부세관에 따르면 지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상위 3개 품목은 합성수지(17억4천만달러), 철강관(8억8천만달러), 석유화학 합성원료(5억9천8천만달러)로 이들 품목이 석유를 원료로 하는데다 달러 약세에도 중국 위안화는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원화는 강세를 지속해 유휴설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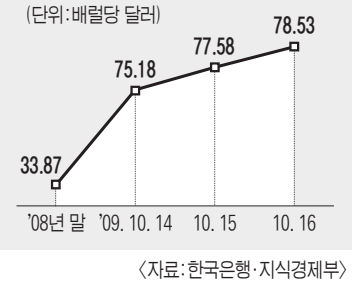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원/달러)



CD금리 추이 (단위:연%)



서부 텍스사유 원유가격 추이 (단위:배럴당 달러)



고유가와 원고에 따른 이종고에 직면해 있다.

원화강세는 또 철강·조선·가전에 이어 자동차 업종 전반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삼성 광전자와 가이차 광양공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지역 주력 수출기업들이 수출 감소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도 고유가와 고금리로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휘발유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보통 휘발유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은 광주가 지난 1월 11.1천285원에서 10개월만에 1천585원으로 23.3%나 올라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CD 금리가 최근 3개월사이 0.38%포인트 오르면서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도 5.63%로 1개월만에 0.05%가 올랐다. 광주·전남지역의 대출 규모(예금은행 기준)가 1% 오르면 대출이자 지역에서만 3천1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한상의 조사결과 국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은 최근 환율이 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수치를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며 "환율외에도 고유가와 고금리까지 겹쳐 기업과 가계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하고 저렴하게

18일 신세계 이마트에서 운영 중인 전남 농산물 생산자 직거래 장터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고르고 있다. 새벽에 수확해 당일 오전 10시까지 직배송하는 데다 중간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하고 값이 저렴하다. <광주신세계 제공>

"새벽에 수확해 점심 식탁에 올립니다"

신세계 이마트 '전남 농산물 직거래 장터' 22일까지 광주·상무·광산·봉선점에 개설

생산자가 새벽에 수확한 채소를 당일 매장에 진열, 판매하는 '생산자 직거래 장터'가 대형 마트에 등장했다. 광주신세계는 18일 '이마트 광주점, 상무점, 광산점, 봉선점 등 전남권 4개 점포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일 정으로 생산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전남도의 도움으로 품질 관리가 가능한 우수 농가 11곳을 발굴했다. 진열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풋고추,양상추, 고구마, 나주배, 양파, 단감, 부추, 미나리, 목초겨래 장터'가 대형 마트에 등장했다. 광주신세계는 18일 '이마트 광주점, 상무점, 광산점, 봉선점 등 전남권 4개 점포에서 16일부터 22일까지 일 정으로 생산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이를 위해 전남도의 도움으로 품질 관리가 가능한 우수 농가 11곳을 발굴했다. 진열되는 친환경

경로의 단축으로 소비자는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고, 생산자는 10% 이상의 추가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지역 내에서 이뤄지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해에도 농민 장터를 운영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마트 광주점 이장환 대표는 "이런 특판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기자 chadoll@kwangju.co.kr

"A형 외아들 남고생 게임중독 가장 위험"

한국컴퓨터생활학
혈액형 A형에 외아들, 남자 고등학생이 중독 게임중독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는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심각한 게임중독 상담 사례 114건을 분석한 결과 A형, 외아들, 남자, 고등학생 등 조건이 다른 조건에 비해 중독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심각한 게임중독 사례는 성적 하락, 피부 질환, 폭언과 폭력 행동, 기절, 등고 거부 등 복합적 증상을 나타냈던 게임중독 중기 이상 상태에 해당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111명(97.4%), 여자가 2.6%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

"사교육비 내수 진작 장애물" 가계 소비의 7.4%... 이자부담도 소비 가로막아

한국은행 분석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과 이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가계 소비의 특징'에 따르면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4%에서 올해 상반기 7.4%로 2.0%포인트 높아졌다. 이 기간 유학·연수를 포함하면 각각 5.8%와 8.2%가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7.3%였는데 이는 미국(2.6%), 일본(2.2%), 영국(1.4%), 프랑스(0.8%), 독일(0.8%)보다 3~9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사교육비가 교육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교육비 비중은 3.5%에서 3.8%로 0.3%포인트 증가해 그친 반면, 사교육비 등 기타 교육비 비중은 1.9%에서 3.6%로 갑질 가까이 늘었다.

한은은 대학 선호현상과 높은 등록금 인상률 같은 사회적 현상이 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2007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입학률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6%)을 웃돈 것은 물론 독일(46%), 일본(46%), 영국(5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았다.

민간 부분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금융회사에 내는 이자 부담이 무거운 것도 소비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혔다.

이 밖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외 소비지출 비중이 높고, 소득계층에 따른 소비 불균형이 심해 경기나 나쁜면 저소득층은 생활필수품을 사느라 추가 소비 여력이 줄고 고소득층은 선택적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빚어진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자영업자 6년만에 최대 감소 전년동월비 5.4%... 상용직은 1천만명 육박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의 상용직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늘어 1천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는 경기 침체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6년 반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은 960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늘어난 반면 자영업은 573만5천명으로 5.4% 줄었다.

상용직은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과 달리 경제 위기의 영향을 덜 받으며 증가 추세를 유지해 내년 상반기에는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영업자는 지난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32만4천명이 급감해 카드 대란이 발생했던 2003년 4월 33만4천명 감소 이래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일용직 또한 작년 9월 6만9천명이 감소한 이래 지난 7월 7만5천명, 8월 2만7천명, 9월 4만4천명이 줄어드는 등 건설 경기 약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640.36 (-6.43)

코스닥지수
508.26 (+1.97)

금리 (국고채 3년)
4.56% (+0.20)

원·달러 환율
1,164.50원 (0)

*16일 기준 9월과 비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요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건리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경제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공정/보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지/건물

대인동상일부동산
☎ (02)223-1140, 5210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호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수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분양문의 ***
(유)코리아랜드컨설팅
☎ 959-1033, 010-7723-1033